"방탄노년단까지 가보겠습니다"

BTS, SNS에 데뷔 10주년 소감

제이홉 "꾸준한 사랑 감사"
진 "아미 있어 인생이 행복"
17일까지 '애니버서리 페스타'
10주년 싱글 앨범 '테이크 투'
데일리 톱송 글로벌 차트 1위

"우리 함께 '방탄노년단'까지 가봅시다!" (슈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이 11일 데뷔 10주년을 맞아 "10년간 함께해 주신 아미(방탄소년단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았다"며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는 이날 공식 SNS를 통해 멤버별로 데뷔 10주년을 자축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국은 "10년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시간을 공유해 줘서 감사드린다"며 "행복, 사랑이란 것을 조금이라도 혹은 너무 많이 알게끔 해줘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도 10년 더 여러분과 같은 속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함께 걷고 싶다"며 "우리의 미래는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맏형 진은 "10년이고 100년이고 항상 함께하자. 아미가 있어 제 인생이 참 행복하다"고 했고, 리더 RM은 "기억은 때론 참 중요하고 좋은 것 같다"고 뭉클한 심경을 드러냈다.

제이홉은 "꾸준하게 관심과 사랑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고, 지민은 "많은 것을 같이 느끼고 같이 추억하니 외롭지 않다. 여러분에게 저희도 늘 그런 존재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썼다.

뷔는 "어쩌면 10년보다 더 됐는데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기록 남긴 것들이라 (트위터를 보니) 뭉클하다"고 남겼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데뷔 10주년을 자축하는 'BTS 10th 애니버서리 페스타'를 열고 있다. 오는 17일에는 서울 한강공원에서 성대한 불꽃놀이와 함께 멤버 RM이 팬들을 대면하는 오프라인 이벤트도 마련된다.

한편, BTS가 지난 9일 발표한 데뷔 10주년 기념 디지털 싱글 '테이크 투'(Take Two)가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톱송 글로벌'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간) 스포티파이 최신 차트에 따르면 이 노래는 727만9978회 스트리밍돼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테이크 투'는 일본 오리콘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에서도 다운로드 2만1792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테이크 투'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감미로운 보컬과 포근한 랩으로 팬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어쿠스틱 팝 장르의 노래다. /연합뉴스

"사랑에 헌신하는 미주한테 배웠어요"

드라마 '나쁜엄마' 안은진
남친에 배신 당하는 미혼모 역
"연인 향한 한결같은 믿음 감탄"

"미주는 강호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깊은 믿음으로 무작정 기다린 거죠."

8일 종영한 JTBC 드라마 '나쁜엄마'의 이미주(안은진 분)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첫사랑 최강호(이도현)를 위해 밥을 하고, 빨래한다. 또 월급으로 방값과 학원비를 내주며 사법고시 공부를 뒷바라지한다.

사랑했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몇 년을 헌신한 끝에 강호는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하지만, 그는 어딘지 모르게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임관식 당일,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며 짐을 싸서 떠나버린다.

드라마 종영을 기념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안은진은 미주가 강호를 붙잡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수년 동안 사랑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미주에게 여러 번 감탄했다"며 "미주에게는 사랑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는 강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가 미주였다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면서 엉엉 울었을 거예요. 강호에 대한 미주의 마음은 너무 큰 사랑이었어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미주는 정말 대단한 어른이죠."

억울한 재판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사랑하는 연인을 매몰차게 차버렸던 최강호는 사고를 당해 7살 지능의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미주 앞에 다시 나타난다.

안은진은 "미주에게는 강호가 떠난 날보다 어린아이가 돼버린 강호를 다시 만난 날이 훨씬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던 옛 연인을 그렇게 다시 만나니까 희망조차 잃어버린 기분이었다"며 "미주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강호가 복장 터질 것 같이 답답한데,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감내하는 미주의 힘은 엄마 정씨(강말금)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춤바람 난 남편은 진즉에 죽고, 홀로 밤낮으로 밭에서 일만 하며 자식을 키운 정씨는 미혼모가 된 둘째 딸 미주의 아이들을 대신 키우고, 밭일하며 모은 돈도 딸을 위해서라면 턱턱 내놓는 엄마다.

안은진은 "두 모녀의 사랑법이 닮았다고 생각했다"며 "엄마는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고 딸은 그런 엄마를 답답해하면서 둘이 자꾸 충돌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딪히는 장면들이 너무 재미있었다"고 돌아봤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출신인 안은진은 2012년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데뷔했다. 이후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 시리즈(2019·2020),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2020·2021) 등에 출연하며 탄탄한 연기력으로 인지도를 높여왔다.

이제 어느덧 주연급 배우로 자리 잡은 안은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MBC 사극 '연인'에서 남궁민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그는 "올해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연인' 촬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tvN 드라마, 하반기 신작 쏟아진다

'경이로운 소문2' 등 6편…'아스달 연대기2' 이준기·신세경 합류

tvN이 올해 하반기 한국형 히어로물 '경이로운 소문'과 판타지물 '아스달 연대기'의 시즌2를 비롯해 총 여섯 편의 신작 드라마를 방송한다고 밝혔다.

'경이로운 소문2: 카운터 펀치'는 오는 7월 방송된다. 악귀 사냥꾼인 '카운터'들이 지상의 악귀들을 물리치는 내용을 다룬 히어로물로, OCN에서 방송한 지난 시즌이 최고 시청률 11%를 기록하며 호평받았다.

시즌1의 주연 배우 조병규와 유준상, 김세정, 염혜란, 안석환이 시즌2에도 출연하고, 진선규, 강기영, 김히어라, 유인수가 새로 합류한다.

2019년 9월 종영한 '아스달 연대기' 시즌2인 '아라문의 검'은 9월 방송 예정이다. '아라문의 검'은 타곤(장동건 분)이 아스달의 왕이 되면서 마무리됐던 전 시즌으로부터 8년이 지난 후의 세상을 배경으로 한다.

전 시즌에 이어 장동건이 타곤 역할을, 김옥빈이 태알하 역할을 맡았다. 이준기와 신세경이 시즌2에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를 연기한다.

10월 방송될 '무인도의 디바'는 화제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를 연기한 배우 박은빈이 출연해 관심을 모은다.

박은빈은 15년 만에 무인도에서 구조된 가수 지망생 서목하로 등장한다.

'이번 생도 잘 부탁해'는 이달 17일 방송을 앞뒀다. 전생을 기억하는 주인공 반지음이 전생에 만난 운명적인 연인 문서하와 만나 벌어지는 일을 다룬 로맨스물이다. 배우 신혜선과 안보현이 각각 반지음과 문서하 역할을 맡았다.

다음 달 24일 방송될 '소용없어 거짓말' 역시 로맨스 드라마다. 거짓말이 들리는 능력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목솔희와 진실을 숨기는 천재 작곡가 김도하가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다. 김소현이 목솔희를, 황민현이 김도하를 연기한다.

판타지 청춘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은 9월 방송된다.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소년 은결이 낯선 공간에 불시착하고 그곳에서 밴드를 결성하는 내용을 다룬다. 배우 려운이 코다(CODA, 청각장애인 부모 아래서 태어난 청인 자녀)이자 음악 천재 은결 역할을 맡았다.

/연합뉴스

수지, 하이브 걸그룹 데뷔 서바이벌 주제곡 참여

가수 수지〈사진〉가 하이브의 새 걸그룹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 JTBC '알유넥스트'(R U Next?)의 주제곡 '전속력으로'를 부른다고 기획사 빌리프랩이 밝혔다.

12일 발매되는 '전속력으로'는 차세대 글로벌 그룹 멤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참가자들의 열정과 방향성을 담은 곡이다.

'알유넥스트'는 하이브와 CJ ENM의 합작 레이블 빌리프랩의 차세대 걸그룹 멤버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총 7개의 미션을 거쳐 데뷔 여부가 결정된다. 오는 30일부터 JTBC와 일본 아메바 TV에서 방영된다. /연합뉴스